

## “광주 군 공항 이전, 민주당 내년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야”

이용빈 광주 광산갑위원장, 군공항이전법 개정·협약체 구성 제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정치권, 책임있는 자세 부탁”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은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민주당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전남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지만 군 공항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광주·전남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의 차원이 아닌 갈등 관계로 옮겨가는 데 대해 매우 기승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 나서 21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공항과 군사시설 이

전사업 지원’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7번 과제 내 실천 과제”라며 “국방부는 국정과제라는 부여된 임무 완수를 위해 눈치 보기와 미필적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과 염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군공항이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전사업의 사업비는 5조 7400억원으로 개발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장기화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서 대규모 수익사업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주변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지원사업이 절실하지만 개발 수익금 내에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어 특단의 지원계획 마련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군공항이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 공항 이전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당적을 떠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광주·전남 예비후보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은 미래기반과 경제기틀을 바꾸는 중요한 현안”종전부지 개발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광주의 미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신경제지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역할과 혁신기능을 부여할 것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산갑지역위원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민주당 총선공약 채택 △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원수 △군공항이전법 개정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간의 협약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 발전전환으로, 그린뉴딜과 그린테크&휴먼웨어 스마트시티 등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적극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군 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정치권이 보다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도록 응원과 격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빈 위원

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원, 박현석·윤해영·공영철·박경신 광산구의원, 김명수 수석, 윤귀옥 단장, 김은규·김향희 특별위원장, 당직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임형택 기자

## 곡성군, 석곡 흑돼지 숯불구이 명성 살리기 나섰다

음식점 대상 전문가 컨설팅·메뉴 개발 등 시도



곡성군은 훌륭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으로 유명한 석곡 흑돼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특화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흑돼지’ 하면 사

람들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 전까지 여수, 순천 일대를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주 흑돼지보다 석곡 흑돼지가 더 유명했다. 호남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 석

곡은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중간 위치에 있어 석곡터미널을 중심으로 흑돼지 음식점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석쇠 위에서 숯불에 구워지는 흑돼지의 고소한 냄새를 뿌리칠 수 없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오가는 사람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석곡흑돼지 명성도 쇠락해 현재는 5~6개의 음식점만이 전통을 잇고 있다.

곡성군은 과거 명성을 살리기 위해 석곡권을 자연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관광벨트로 조성하고 흑돼지숯불구이의 특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흑돼지 음식점주들을 대상으로 6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부터는 전문가 컨설팅과 이용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흑돼지 대표 음식점 육성을 위해 인테리어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올해 안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아 메뉴 개발에 노력한 결과 간장 석쇠구이와 매운 양념 석쇠구이를 기본으로 돼지고기 짜글이, 냉모밀, 흑돼지 비빔밥, 고기국수 등 개성 있는 음식이 나왔다.

유명 셰프인 임성근씨는 석곡 흑돼지 음식점주들에게 고기 굽는 노하우와 소스 비법을 전수해줬다.

군 관계자는 “석곡 흑돼지 숯불구이가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주도의 지원보다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돌실한약역인흑돼지영농조합법인’ 등 청년 축산인들의 노력이 결집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2038년 전남인구 10명 중 4명 ‘65세 이상’

2038년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호남·제주지역 고령자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22.3%, 전북 20.6%, 제주 14.5%, 광주 12.9%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9%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과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2년 65세이상 인구비중이 20.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2019년 22.3%,

2038년에는 4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1년에는 40%이상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2021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2038년에는 30%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는 201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5%로 2017년(14.0%)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30%이상이 될 예정이다.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전남이 각각 33.6%, 13.8%로 가장 높았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